

#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II)\*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인지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 비교 분석-\*\*

Ecological support system for promoting youth culture in a new millenium age\*

-Comparative Analysis on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family between Adolescent and Parent-\*\*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명자 · 이정우 · 계선자 · 박미석  
박사과정 박 수 선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Kim, Myung Cha · Lee, Jeong Woo · Kye, Sun Ja · Park, Mee Sok  
Doctoral Student : Park, Su Sun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adolescent family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rough analyzing each party's percep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1235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from 19 high school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Regarding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justment, both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showed an average level, whereas parents had a tendency to show a higher level than their childre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irls and boys and between fathers and mothers as for family cohesion,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인 '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및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의 일부임.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목적은 숙명여대 홈페이지(www. sookmyung.ac.kr)의 BK21을 참고 바람.

- while the girls and their moth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adjustment than boys and their fathers.
2. Th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showed relatively open communication style and parents have significantly more open communication style than their children.
  3. The adolescents felt that they were viewed more negatively by their parents than what their parents actual views were.

## I. 서론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존재에 대한 확신과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권위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재조정이 요구된다. 청소년 자녀는 한편으로 독립적 욕구와 자기 주장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영역이나 사회경험의 반경이 좁고 아직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 부모나 기성세대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탈하고 분리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 때 가족이 보다 융통성 있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상호작용형태를 유지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변화가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가족내 상호작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가족기능과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보화가 가족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기존의 면대면 의사소통이 지녔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결과 가족관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 변화와 맞물려 가족의 변화는 현대 한국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과 청소년 가족생활에 투영되고 있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재화된 가치관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즉 산업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세대와 정보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현격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이러한 차이가 증폭될 소지가 많다. 이와 같이 전통과 변화된 가치가 혼재된 부모, 그리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청소년 자녀로 구성된 한국가족에서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 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부모 자녀의 세대차가 더욱 크게 인지되는 현대 가족생활에서 우리나라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족환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인지하는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 자녀에 대한 견해 등과 같은 심리적 환경은 개인의 지각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작용하므로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가족에서는 청소년 발달을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호간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려는 유연한 가족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족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가족 모델과 가족관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공성진, 1998).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복지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 가족내에서 상호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조현춘, 1994; Daniel, 1997).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청소년 자녀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현재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가족의 건전한 심리적 환경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족상담이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현재 가족생활은 물론, 부모자녀관계 향상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현대 사회와 가족 생활의 변화

정보화 시대의 가족생활은 다양성·선택성·다원성을 가지고 개성적 가족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적 존재연대를 추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가족내에서도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가족의 정서적 측면이 보다 중시될 것이다(김은미, 1999).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주의 발달은 세대차이에 대한 인식이 심해지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단절과 갈등을 가중시키게 된다(김경신, 1999; 변화순, 1997). 청소년 자녀는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반면, 부모는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보다 기존의 가족 중심적 사고를 고수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에는 과거보다 더 큰 세대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 부모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가족안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중심으로 찾으려 하지만 청소년 자녀는 이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고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이나 네트워크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세대간의 차이에 대해 부모보다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갈등이 생길 경우 회피하고 수동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이주옥, 1993). 청소년 자녀들에게 가족은 더 이상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관심대상이 아니며, 개별화 욕구와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가중되는 개인주의를 바

탕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에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증폭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전 반적인 청소년기 가족의 발달단계적 적응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 1)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

정보화 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자녀간의 유대감 약화와 부모세대의 권위 감소로 압축될 수 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세대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세대차이란 가치나 규범의 차이가 아닌 동일한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각 집단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유형이나 양식에서의 차이를 말하며(황상민, 1997), 이러한 세대차이는 주로 연령차이와 그에 따른 상이한 경험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있는 자녀세대와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보다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부모세대의 차이는 과거보다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 자녀는 넷트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세대로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1979년 이후 출생자를 지칭한다. 넷트세대는 강한 독립심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각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기성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생활경험을 갖는다(이선이, 1999). 이들의 모든 생활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컴퓨터를 매개로 개방된 상태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김은미, 1999).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면대면 방식에서 보이지 않는 일대 다수의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쉬워진다. 청소년 자녀는 새로운 돌파구인 이곳에 더욱 집착하게 되며, 그로 인해 부모와의 대화단절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최근 넷트세대에 대한 조사(중앙일보, 2000.1.3일자)에 의하면 넷트세대의 3명 중 한 명 꼴인 32%가 '혼자

PC를 조작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응답한 결과는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고독을 느끼고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심리학적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모세대는 청소년 자녀와의 문제해결을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찾으려하기 때문에 자녀세대와의 마찰이 계속된다(Anne, Laurence & Elizabeth, 1999; Daniel, 1997). 또한 정보화 시대에서는 부모세대의 경험과 지식이 자녀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용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김경신, 1999; 김은미, 1999) 산업사회에서 부모세대가 누리던 권위는 급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자녀세대는 이미 사회의 변화에 동참하고 있고, 가족보다는 또래집단에 더 관심이 많으며, 세대간의 차이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가족원간의 갈등, 청소년 문제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서 청소년 발달을 저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2. 청소년 자녀와 가족의 심리적 환경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가족구조와 기능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원들의 심리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대 가족은 가족원간의 심리적 안정과 유대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갈망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는 주요 문제에서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Sebald, 1986, 김경신, 1998에서 재인용),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부모자녀간의 대화는 어려워지고 세대간에 불일치가 심해지며 이는 점점 극대화된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다른 단계의 가족에 비해 부모자녀간 갈등이 가장 많고(김양희, 1993),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점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조력,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수용, 신뢰, 자율성, 높은 가족 응집성으로 인한 행복한 가족 분위기(강대근, 1994) 등 안정된 심리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건강한 심리적 환경은 청소년 자녀와 가족 전체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재조정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으로 가족의 기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의 응집성·적응력과 부모자녀의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견해를 선정하여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인식차이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응집성·적응력

청소년 자녀에게는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태도보다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 중 가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은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가족의 기능성·건강성을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가족의 기능성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와 문제행동(김광웅, 1999; Daniel, 1997; Kaslow, Warner, John, & Brown, 1992; Martin, Rozanes, Pearce, & Allison, 1995), 자아존중감(Shagle & Barber, 1995; Sweeting & West, 199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Olson(1986, 1988)은 폭넓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순기능적 가족을 나타내주는 개념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개념으로 가족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그리고 촉매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을 제안했다(Olson, 1986, 1988, 김명자, 1999에서 재인용). 가족 응집성은 가족 상호간에 지니는 정서적 유대감이며, 가족 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발달적 요구에 반응하여 권력, 역할구조, 관계

성과 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된다(Olson, 1983). Olson등은 응집성과 적응력이 모두 중간수준인 균형가족에서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고 문제행동이 없으며, 응집성과 적응력이 모두 높거나 낮은 극단가족 유형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이 낮고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유형에서 청소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원의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김수연·김득성, 1993; 김순옥, 1990; 전귀연·최보가, 1995; 최연실, 1996). 이에 대하여 가족의 기능성을 평가할 때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가족간의 조화와 유대를 중시하는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나라의 가족생활에서는 병리적인 극단수준과 건강한 수준은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김명자, 1992, 1999; 김수연·김득성, 1993).

발달단계를 볼 때 학령전기에서 청소년기로 이동할수록 가족의 응집성·적응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기 가족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응집성·적응력 수준은 전체 가족의 응집성·적응력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응집성·적응력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박은주·김경신, 1995; 이명숙, 1998; Farrell & Barnes, 1993; Ohannessian et al., 1995). 응집성·적응력은 아들보다 딸이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금, 1992),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옥, 1990).

## 2) 의사소통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적응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역기능적 수준에서 기능적 수준으로의 변화를 돕는 중요한 촉매역할을 담당한다(Olson, 1983; 최정선·이정우, 1999).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정서적 결속과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가족의 기능성 향상이 청소년의 적응을 촉진시킨다(김윤희, 1990; 박은주·김경신,

1995). 또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는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경, 1992).

현대 정보화 시대는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대화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김경신, 1999).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대다수(98.1%)가 고민이 있고, 고민상담대상으로 여전히 친구(57.2%)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모는 오히려 점점 고민상담대상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여성통계연보, 1999). 이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N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들과 부모의 공감할 수 있는 대화소재 부족을 들 수 있으며(중앙일보, 2000. 3. 18일자), 부모자녀간의 심각한 대화 단절은 청소년의 우울증, 충동적 행위 등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깊다(조선일보, 1999. 7. 19일자; 2000. 3. 21일자). 더구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김수연, 1997),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이주옥, 1993)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 변화를 겪는 현실에서 부모와 자녀간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수연, 1997; 백양희·최외선, 1997; 정현희, 1999; 최규련,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이러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청소년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김순옥, 1990, 1997). 이는 두 세대간의 이해가 개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부족하기 쉬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아와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발달되고 건강한 사회화를 이루게 된다.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연령과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세대차이와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

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에서 두 세대간의 인식차이를 지적하고 있으며(김오남·김경신, 1994; 김윤희, 1990; 조홍식, 1995), 아들보다 딸이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김순옥, 1990, 1995; 박은주·김경신, 1995). 전반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와는 대화를 잘하고 있는 편이지만 아버지와는 대화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경, 1992). 그러나 자녀의 성별로 살펴보면 동성의 부모자녀간에 의사소통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옥, 1990). 이러한 동성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성별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3)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 및 청소년 자신의 견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견해 차이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보다 더욱 민감하게 느끼며, 이는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el, 1997). 청소년은 그들의 부모가 실제로 그들을 평가한 것보다 부모가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자녀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거나 자녀가 부모의 태도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차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춘재 외, 1996).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 자녀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아긍정성이 낮아지게 된다(김순옥, 1999).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견해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은 한국가족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기대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석, 1993; 손승일, 1999). 부모는 아들에게 자녀로서 책임감이나 학업성취적인 면을 기대하는 반면 딸에게는 가정내 역할과 여성적 행동을 기대한다(이주옥, 1993). 최근 들어 가족내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차이가 좁혀졌

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국가족 내부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7). 청소년 자녀는 사회화의 일차적 책임자인 부모의 태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이주옥, 1993).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성에 따라 구분하여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승일, 1999),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의 성역할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미·김경신, 1996). 청소년 자녀가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견해는 아버지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강해구, 1987),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청소년 자녀는 우울성향이 높아졌다(최선남·최외선, 1995).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고정화된 태도보다 사회 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태도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견해차이를 줄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각각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족 응집성·적응력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아들과 딸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는 가족 응집성·적응력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의사소통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자신에 대한 견해와 부모의 견해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집단들을 할당표집 하였으며, 추출방법으로 집락표집과 비율층화표집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비율층화표집의 경우 모집단은 교육부(1999) 교육통계연보의 성별(남:여=5:5)과 계열(인문계:실업계=6:4)을 기준으로 각 범주에서 일정 수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을 서울시(강북과 강남을 고려하여 8개 고교), 중소도시(경주, 안양, 천안, 춘천, 부천 등의 6개 고교), 군·읍·면(강원도, 경기도, 경북, 충남, 전남 등 5개 고교)으로 구분하여 전국의 총 19개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학입시를 앞둔 3학년생을 제외한 1학년 또는 2학년 고등학생과 그 부모 중 응답이 가능한 1명을 한 쌍으로 하였다.

먼저 고등학생 35명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25일~10월 31일까지 개별적 면접을 통한 질적 예비조사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는 1999년 11월 22일~12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450쌍(3900명)을 배부하여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 1235쌍(2470명)을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의 선정 및 자료분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ner과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력 척도인 FACESⅢ, 임수미(1995)의 연구를 기초로 우선 10문항을 선정한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응집성, 적응력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을 채택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으면 가족 응집성·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로서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문장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총 6문항을 선정하였다. 5점 리커트형으로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코드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자녀에 대한 견해 척도는 강해구(1987)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장완성 검사 내용 중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가족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토대로 10문항을 구성한 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각각 5문항씩 구성되어 있는 척도로서 자녀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1235)

청소년 관련변인	집 단	빈 도(%)	부모 관련변인	집 단	빈 도(%)
성 별	아들	571(46.2)	성 별	아버지	413(33.4)
	딸	638(51.7)		어머니	765(61.9)
계 열	인문계	830(67.2)	학 력	중 졸	275(22.3)
	실업계	373(30.2)		고 졸	547(44.3)
월평균 용 돈	2만원 미만	292(23.6)		전문대졸이상	310(25.1)
	4만원 미만	297(24.0)	월평균 소 득	150만원 미만	269(21.8)
	6만원 미만	335(27.1)		210만원 미만	369(29.9)
	6만원 이상	196(15.9)		350만원 미만	239(19.4)
350만원 이상	157(12.7)				
거 주 지 역	서울특별시	495(40.1)	소 득 적정도	불만족	572(46.3)
	중 소 도 시	414(33.5)		보 통	527(42.7)
	군·읍·면소재지	293(23.7)		만 족	57( 4.6)

각 변인마다 무응답을 missing 처리하여 전체사례가 동일하지 않음

〈표 2〉 척도의 신뢰도

대 상	변 인	문항수	신뢰도 계수	
청소년	응 집 성	4	$\alpha=.79$	
	적 응 력	4	$\alpha=.71$	
	의사소통	아버지	6	$\alpha=.79$
		어머니	6	$\alpha=.76$
	자신에 대한 견해 인지	(아버지)긍정	3	$\alpha=.83$
		부정	3	$\alpha=.65$
		(어머니)긍정	3	$\alpha=.80$
	부정	3	$\alpha=.63$	
부 모	응 집 성	4	$\alpha=.76$	
	적 응 력	4	$\alpha=.63$	
	의사소통	6	$\alpha=.75$	
	자녀에 대한 견 해	긍 정	5	$\alpha=.75$
		부 정	5	$\alpha=.68$

부모의 견해 일치정도를 파악하게 되어있다. 3점이 최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모든 척도는 안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등을 통해 수정·보완되었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자료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고, 자녀의 성별간, 부모간, 세대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쌍체 t검증,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PC<sup>+</sup>를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가족의 응집성·적응력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의 전반적인 경향과 아들과 딸간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응집성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점수가 각각 3점 이상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아들과 딸간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친한 친구를 알고 있다'에서 아들보다는 딸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보다 표현을 잘하는 딸이 일상 생활에서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어머니와 청소년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친구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가 가장 높은 반면, '함

〈표 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의 일반적 경향

	문 항	청소년 자녀			부 모						
		아 들		t	어 머 니		t				
		평균	SD		평균	SD					
응 집 성	서로 깊은 친밀감과 애정 느낌	3.61	.97	3.56	1.01	.85	3.92	.84	3.87	.84	.92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줌	3.78	.96	3.83	.89	-.87	3.95	.85	3.95	.87	.08
	함께 하는 취미나 관심사 쉽게 찾음	2.74	1.03	2.78	1.06	-.67	3.14	.95	3.18	.97	-.79
	서로의 친한 친구 알고 있음	3.42	1.12	3.65	1.04	-3.70***	3.57	.97	3.78	.92	-3.71***
	전 체	3.39	.78	3.45	.81	-1.48	3.64	.69	3.70	.69	-1.29
적 응 력	상황에 따라 주도자가 바뀜	2.88	1.13	3.07	1.09	-3.06**	2.73	1.13	2.88	1.14	-2.23*
	자녀들도 결정에 참여함	3.07	1.13	3.33	1.02	-4.13***	3.29	.95	3.37	.95	-1.21
	규칙이 때에 따라변화함	2.71	1.11	2.90	.98	-3.06**	2.98	.99	3.12	.94	-2.48*
	자녀도 해당규율 의견제시 가능	3.17	1.12	3.47	1.10	-4.71***	3.59	.91	3.66	.86	-1.40
	전 체	2.96	.82	3.19	.76	-5.15***	3.15	.70	3.26	.67	-2.68**

\*\*\*:p<.001 \*\*:p<.01 \*:p<.05



게 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쉽게 찾는다'는 평균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의 중요성을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개별화 욕구와 현대 정보화 사회안에서 더욱 증폭되는 상이한 관심사로 인한 현실적인 부모자녀 세대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력은 3점 정도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아들보다는 딸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적응력이 의미있게 높았다. 이는 부모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딸이 가족상황의 변화와 융통성에 대해 아들보다 긍정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며, 부모의 경우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가정생활 참여도나 관심도는 낮아지는 반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의 전통적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할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전반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문항별로 보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 '자녀들도 해당 규율에 대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다'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다음이 '자녀들도 여러 가지 결정에 참여한다'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규칙의 융통성과 적응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족의사 결정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의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 청소년 자

녀와 어머니의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 차이를 알아보고자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먼저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응집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 응집성이 청소년 자녀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의 결속이나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부모에 반해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 가족전체보다는 개인중심의 생활을 추구하는 사회적 특성과 개별화 욕구가 일치하여 가족보다는 또래집단, 네트워크 환경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서로 깊은 친밀감과 애정을 느낀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응집성 비교는 모든 문항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반면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응집성 비교에서는 '서로의 친한 친구를 알고 있다'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청소년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한 인식정도가 어머니보다 낮음으로 인해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내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심리적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적응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 적

<표 4>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가족 응집성·적응력 비교

	문항	청소년 자녀		아버지		paired-t	청소년 자녀		어머니		paired-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응집성	서로 깊은 친밀감과 애정 느낌	3.58	.97	3.92	.84	-6.29***	3.57	.99	3.87	.84	-7.93***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줌	3.78	.89	3.96	.85	-3.39***	3.81	.92	3.95	.87	-3.42***
	함께 하는 취미나 관심사 쉽게 찾음	2.75	1.01	3.14	.95	-6.53***	2.77	1.06	3.18	.97	-9.25***
	서로의 친한 친구 알고 있음	3.47	1.14	3.57	.97	-1.62	3.58	1.06	3.78	.92	-4.79***
	전체	3.40	.77	3.65	.69	-6.24***	3.43	.80	3.70	.69	-8.81***
적응력	상황에 따라 주도자가 바뀐다	2.93	1.13	2.73	1.13	2.86*	3.01	1.09	2.89	1.14	2.52**
	자녀들도 여러 가지 결정에 참여함	3.13	1.09	3.30	.97	-2.54*	3.24	1.07	3.36	.95	-2.73**
	정해놓은 규칙이 때에 따라 변화함	2.72	1.05	2.98	.98	-4.05***	2.86	1.04	3.12	.94	-5.78**
	자녀들도 해당 규율에 대한 의견제시 가능	3.24	1.15	3.60	.89	-5.47***	3.37	1.09	3.67	.85	-6.68***
	전체	3.01	.80	3.16	.70	-3.11***	3.12	.79	3.26	.67	-4.14***

\*\*\*:p<.001 \*\*:p<.01 \*:p<.05

응력이 청소년 자녀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달단계상 어느 시기보다도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청소년기 가족에서의 부모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청소년 자녀는 급격한 정보사회의 변화, 다양화에 직면하여 가족의 보수성을 크게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유일하게 '상황에 따라 주도자가 바뀐다'라는 문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청소년들의 적응력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적응력의 다른 문항 결과와 관련시켜 볼 때 의사결정시 부모자녀간의 전이가 아닌 부모간의 주도권 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표 5).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어느 정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문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는 선행연구(김오남·김경신, 1994; 김윤희, 1990; 김현정, 1995; 조홍식, 1995; 차은정, 1993; Barnes & Olson, 1985) 결과와 일치한다. 동일한 상

황에서 부모가 자녀에 비해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청소년 자녀의 입장을 부모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느낀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화소재를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이야기하게 되고, 이 때문에 부모는 청소년 자녀와 대화가 원활하다고 생각해도, 자녀는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정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는 청소년 자녀에게 가족이외의 통신이나 기타 네트워크를 통한 일대 다수의 대화 대상을 제공해줌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이러한 차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생각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 3점 이상으로 어느 정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문제발생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솔직한 느낌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3점 이하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내 문제발생시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통신이나 네트워크상에서의 또래집단이나 특정 다수와의 의사소통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족내 솔직한 감정표현이나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도는 2.91과

〈표 5〉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비교

문항	전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	부모	paired-t	청소년 자녀	아버지	paired-t	청소년 자녀	어머니	paired-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생각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함	3.28 .96	3.68 .93	-11.33***	2.98 1.15	3.55 .92	-8.84***	3.71 1.06	3.74 .93	-.53
이야기를 잘 들어줌	3.53 .87	3.86 .77	-10.67***	3.29 1.11	3.78 .77	-8.43***	3.83 .97	3.90 .77	-1.56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움	3.13 .94	3.47 .86	-9.10***	2.96 1.07	3.39 .89	-7.43***	3.38 1.07	3.51 .84	-2.96**
문제발생시 아무 이야기도 안함	2.83 1.12	2.84 1.06	.18	2.79 1.23	2.94 1.05	-1.77	2.96 1.23	2.78 1.07	2.68**
솔직한 느낌 이야기하기 어려움	2.88 1.09	2.69 1.04	4.07***	2.64 1.20	2.92 1.01	-3.15**	3.12 1.20	2.57 1.03	8.59***
원하는것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움	2.91 1.06	2.70 1.07	4.54***	2.73 1.20	2.96 1.07	-2.60**	3.13 1.18	2.56 1.04	9.26***
전체	3.10 .69	3.20 .44	-4.08***	2.91 .80	3.26 .45	-7.57***	2.84 .84	3.18 .43	-9.09***

\*\*\*:p<.001 \*\*:p<.01 \*:p<.05

3.26,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도는 2.84, 3.18로 나타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별로 살펴볼 때 거의 모든 문항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솔직한 느낌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문항에서는 청소년 자녀에 비해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강한 한국 아버지의 가정내 권위적인 이미지로 인해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가 않으며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이 매우 적고 주로 위기상황에서만 개입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청소년 자녀와 '문제 발생 시 아무 이야기도 안한다', '솔직한 느낌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에서는 청소년 자녀보다 폐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 기대와 관점차이에 대해 청소년 자녀는 또래집단이나 통신을 이용한 대화대상을 통해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반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어머니의 경우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개방인식정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 모두 청소년 자녀에 비해 개방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 및 청소년 자신의 견해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견해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청소년 자녀가 부모보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실제적인 평가에 비해 부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연구결과(이춘재 외, 1996)와 일치한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견해 차이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때,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3점 만점 중 청소년 자녀는 2.38, 부모는 2.77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에 비하여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인 인식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많음을 의미하며, 청소년

〈표 6〉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견해 비교

문항	전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		부모		청소년 자녀		아버지		청소년 자녀		어머니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긍정적	자랑스럽다	2.27	.54	2.77	.47	2.19	.63	2.72	.51	2.35	.59	2.80	.43
	신뢰한다	2.39	.61	2.79	.49	2.30	.70	2.75	.63	2.46	.64	2.81	.47
	존중한다	2.39	.59	2.74	.51	2.29	.71	2.69	.57	2.49	.62	2.77	.47
	용기를 준다	2.40	.61	2.76	.49	2.34	.74	2.74	.50	2.47	.67	2.76	.48
	정직하다	2.49	.62	2.76	.52	2.37	.71	2.77	.52	2.50	.66	2.75	.54
	전체	2.38	.45	2.77	.35	2.30	.55	2.73	.38	2.46	.46	2.78	.33
부정적	무관심하다	1.33	.51	1.25	.57	1.43	.66	1.33	.63	1.25	.52	1.21	.53
	아이 취급한다	1.74	.74	1.60	.80	1.71	.80	1.64	.82	1.74	.81	1.58	.79
	게으르다	2.24	.74	1.82	.87	2.24	.82	1.78	.85	2.26	.81	1.85	.88
	책임감 없다	1.73	.66	1.42	.67	1.77	.74	1.49	.72	1.71	.72	1.38	.65
	버릇없다	1.64	.66	1.35	.65	1.66	.75	1.41	.71	1.65	.71	1.33	.63
	전체	1.73	.44	1.49	.47	1.76	.50	1.53	.52	1.72	.45	1.47	.45

\*\*\*:p<.001 \*\*:p<.01 \*:p<.05

년기 가족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인 견해 차이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청소년 자녀 2.30, 아버지 2.73으로,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에 비하여 긍정적인 견해 인식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에서 2.1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아버지는 2.72로 높은 점수를 보여 아버지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믿음과 격려가 충분히 청소년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가정내에서 어머니에 비해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족한 아버지의 위치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인 견해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자녀 2.46, 어머니 2.78로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청소년 자녀에 비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에게 행동을 지적 받는 빈도가 이전에 비해 많아지게 되고, 이에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낮은 경향을 보이며, 청소년 자녀는 1.73, 부모는 1.49로 자녀의 견해가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발달특성상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고 부모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반응들이 계속되며 이것이 자녀와 부모의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문항별로 비교해 볼 때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어린아이 취급한다'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성장한 만큼의 행동변화도 요구하면서 부모의 품안에 두고 자 하는 상반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적인 견해 인식차이는 아버지, 어머니에 비해 청소년 자녀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문항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비교에서는 '어린아이 취급한다'에서, 어머니와의 비교에서는 '무관심하다'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의 다른 문항 결과들과 관련시켜 볼 때 어머니와 달리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한 현실에서 거리감으로 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으로 어머니를 가장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견해와 아버지, 어머니의 견해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실제적인 견해보다 부모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대해 서로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 냈으며, 오늘날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환경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비율이 적었다는 점과 높은 관련성이 기대되는 다른 변인들을 배제하고 부모와 자녀의 성별만으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비교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 중간수준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응집성과 적응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 응집성은 아들과 딸간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적응력은 아들에 비

하여 딸이,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와 부모 모두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여 어느 정도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비해 개방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 자녀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견해와 부모의 견해를 비교했을 때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실제적인 견해보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단일 가족 내에서 응집성·적응력, 의사소통, 자녀에 대한 견해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부모자녀간의 인식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이해와 긴밀한 상호작용에 걸림돌이 된다. 청소년 자신의 이해와 더불어 부모자녀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층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른 가족원과의 상호작용도 함께 고려한 심층면접을 통해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정확히 진단한 후 개별 가족의 특성에 알맞는 차별화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세부적으로 현실성을 고려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개선방법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상식적 수준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설득력있는 내용보급이 필요하다. 심리적 환경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인식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급격한 사회변화와 발달특성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하지 말고, N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인 만큼 편지나 메일 등 매체를 이용한 대화시도에서 출발하여 가족홈페이지를 같이 만들어 보는 등 서로간의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참고문헌

- 1) 강대근(1994), 미래의 주인 청소년과 가정, 한국여성개발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동주최, 세계가정의 해 기념세미나 보고서.
- 2) 강해구(1987), 결혼가족 고교생과 정상가족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3) 공성진(1998), 세계화와 가정의 역할, 가족과 미래환경,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p1-8.
- 4)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3권 3호, p43-65.
- 5) 김경신(1999), 가족관계와 청소년, 한국가족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뉴 밀레니엄 시대의 가족과 청소년: 변화와 복지), p1-21.
- 6) 김광웅(1999), 청소년 문제: 사회문화적 배경과 과제,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자료집(뉴 밀레니엄 시대의 건강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p1-9.
- 7)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6.
- 8) 김명자(1999),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편, 도서출판 하우, p167-200.
- 9) 김수연(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10)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과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1권 2호, p30-39.
- 11) 김순옥(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김순옥(1995),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분석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제 33권 6호, p1-10.
- 13) 김순옥(1997), 부모교육프로그램: 자녀와의 대화법,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집, 가족

- 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p47-64.
- 14) 김순옥(1999),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편, 도서출판 하우, p249-283.
  - 15) 김순옥·송현애(1998),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및 효율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3권 1호, p93-119.
  - 16) 김양희(1993),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출판부.
  - 17) 김오남·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 대안가정학회지 제 32권 3호, p105-119.
  - 18) 김윤희(1990), 부부관계·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김은미(1999), '가정정보화와 사이버 가족',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편, '정보혁명·생활혁명·의식혁명', 백산서당.
  - 20) 민병석(1993),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박은주·김경신(1995),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대안가정학회지 제 33권 4호, p27-38.
  - 22)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외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제 35권 2호, p33-47.
  - 23) 변화순(1997), '2010년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 정보와 저널 4권 2호.
  - 24) 손승일(1999), 성역할 사회화에 따른 남녀간 정보편차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7),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26) 유은희(1996),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p1-17.
  - 27) 이명숙(1998), '자원문제와 가족관계', 가족과 미래환경,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 28) 이선미·김경신(1996),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태도, 대안가정학회지 제 34권 1호, p49-64.
  - 29) 이선이(1999), '21세기의 새로운 주역 넷세대',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편, '정보혁명·생활혁명·의식혁명', 백산서당.
  - 30)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31) 이춘재 외(1996),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32)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제 31권 3호, p157-173.
  - 33) 정현희(1999), 청소년: 사회문화적 배경과 과제에 대한 의견,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자료집(뉴밀레니엄 시대의 건강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 p41-44.
  - 34) 조은경(1993),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 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5) 조현춘(199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6) 조흥식(1995), 가족간의 문제인식 및 해결방법,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가족의 관계 역동성과 문제인식), p41-56.
  - 37)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제 37권 2호.
  - 38) 최선남·최외선(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제 33권 3호, p31-42.
  - 39) 최연실(1996),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0) 최정선·이정우(1999),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적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7권 3호, p63-81.
  - 41) 황상민(1997),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세대차에

- 대한 사회인지적 분석, 한국심리학회(발달), 제 10권 2호, p152-166.
- 42) 한국여성개발원(1999), 여성통계연보.
- 43)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연구보고서 94-5.
- 44) 중앙일보(2000. 1. 3/2000. 3. 18).
- 45) 조선일보(1999. 7. 19/2000. 3. 21).
- 46) Anne, C. Fletcher., Laurence Steinberg., & Elizabeth, B. Sella(1999), Adolescents, well-being as a function of perceived interparental consisten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p599-610.
- 47) Barnes, L. H., & Olson, D. H.(1985),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p438-447.
- 48) Daniel T. L. Shek(1997), The relation of family functioning to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4), p467-479.
- 49) Farrel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p120.
- 50) Holmbeck, G. N., & O' Donnell, K(1991), Discrepancies between perceptions decision-making and behavioral autonomy, In R. L. Paikoff & W. A.
- 51) Kaslow, N., Warner, V., John, K., & Brown, R(1992), Intrainformant agreement and family functioning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3), p204-217.
- 52) Lavee, Y(1985),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Integrating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and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Ph.D., University of Minnesota.
- 53) Martin, G., Rozanes, P., Pearce, C., & Allison, S (1995), Adolescent suicide, depression and family dysfunc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2(5), p336-344.
- 54)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1995), Discrepancies in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 of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p490-516.
- 55)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3-28.
- 56) Olson, D. H., & Portner, J(198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57) Papini, D. R., & Micka, J. C(1991), Synchronization in ratings of pubertal maturity and faulty beliefs about family relationship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1, p33-49.
- 58) Shagle, S. C., & Barber, B. K(1995), A social-ecological analysi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American of Orthopsychiatry* 65(1), p114-124.
- 59) Sweeting, H., & West, P(1995), Family life and health in adolescence: A role for culture in the health inequalities debat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0(2), p163-175.